

전통과 변화의 관점에서 본 제주도 원형 주거지

A Study on Jeju Island's Circular Dwelling from the Perspective of Tradition and Change

박 경 민
제주문화유산연구원

- I. 머리말
- II. 고고학적 문화 또는 유형과 그 실체
- III. 제주도의 원형 주거지와 송국리 문화
- IV. 원형 주거지와 공반유물의 변화
 1. 원형 주거지와 원형점토대토기
 2. 청동기시대 이후의 원형 주거지
- V. 맺음말

국문 요약

본고는 제주도에서 확인되는 원형의 수혈주거지에 대한 연구로 기존의 문화해석방식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으로 접근한다.

제주도의 원형 주거지는 송국리 문화 또는 유형이라는 범주 속에서 연구되어 왔다. 우리가 설정하는 고고학적 문화나 유형, 그리고 그것이 반영한다고 믿는 고정된 실체는 양쪽 모두 끊임없이 변화하는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둘의 대응관계를 상정하기 어렵다. 만약 고고학적 문화나 유형에 객관적인 실체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와 상관없이 존재해야 하지만 실제로 그것들은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갖고 다가갔을 때 비로소 우리 앞에 모습을 드러낸다.

제주도의 송국리 문화가 기원후까지 이어진다고 표현하지만 사실 이어진 것은 문화가 아니라 원형 주거지 하나이다. 그것도 평면형태가 원형이라는 그 요소 하나이다. 문화 정체성은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전통과 맥락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과정' 또는 '현상'으로 인식해야 한다. 특정 물질 문화 요소 하나가 지속해서 이어진다고 해서 객관적 실체로서의 정체성이 그대로 이어진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우리는 제주도의 송국리 문화가 탐라의 기층문화로 이어졌다고 쉽게 이야기할 수 없다.

또한 원형집토대토기가 등장하면서 원형 주거지가 증가하는 것은 사실일 가능성이 높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양한 생업경제 방식을 추구했던 집토대토기 집단의 성공적인 정착을 이야기하기는 힘들다. 당시의 유구·유물 세트에는 재지계 요소가 더 많이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원형집토대토기와 같은 일부 새로운 요소의 등장을 가지고 이주 집단을 상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제주도에서 원형 주거지는 천년이라는 시간 동안 시·공간적으로 다양한 맥락 속에서 변화해 왔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송국리 문화의 정체성을 탐라로 이어주는 매개물로 치부해 버릴 수 없다. 우리는 대표적인 특정 유구나 유물에 부여된 특별한 위상을 잠시 내려놓고 다양한 맥락 속에서 그것들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

주제어 : 제주도, 원형 주거지, 송국리 문화, 이주 집단, 맥락

I. 머리말

본고는 제주도에서 확인되는 평면 원형의 수혈주거지를 연구대상으로 한다. 이 수혈주거지는 내부 중앙에 타원형 수혈이 배치되어 있어 많은 연구자가 송국리형 주거지로 인식하고 있다. 때문에 그동안 이 주거지가 확인되는 취락유적이 송국리 유형 또는 송국리 문화라는 범주 속에서 연구되어 왔다.

이러한 연구경향은 현재의 인식 틀에서 큰 문제가 없어 보인다. 실제로 수혈주거지 내부에 존재하는 타원형수혈과 두 개의 중심수혈은 송국리형 주거지의 기본적인 특징으로 이해되고 있다. 따라서 제주도에서 확인되는 이 주거지를 송국리형 주거지라고 부르는 것은 매우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본고의 제목에서도 볼 수 있듯이 필자는 ‘송국리형 주거지’가 아닌 ‘원형 주거지’라는 용어를 선택하였다. 혼란을 감수하면서까지 굳이 이런 선택을 하게 된 계기는 기원후까지 확인되는 제주도의 원형 주거지를 송국리형 주거지라고 부를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 때문이었다.

이미 잘 알려진 것처럼 제주도에서는 청동기시대 이후에도 지속해서 이 원형 주거지가 사용된다. 더욱이 최근 축적된 탄소연대측정치를 참고하면 기원후 5세기까지 이어졌을 가능성도 열려 있다.¹⁾ 그렇다면 기원후에도 확인되는 이 주거지들을 청동기시대의 송국리형 주거지와 같은 성격의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 물론 형태적 유사성이 지속되기 때문에 넓은 범주에서 모두 동일한 명칭으로 분류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문제는 그렇게 분류된 것들에 대한 우리의 인식방법이다. 보통 우리는 같은 형식으로 분류된 것들끼리는 동일한 정체성이 부여되어 있다고 믿어버리는 경향이 있다.²⁾

우리는 어떤 형태에 이름을 부여할 때 기본적으로 분류라는 방식에 의존한다. 즉 비슷한 것들을 하나로 모아 그것에 동일한 명칭을 부여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 작업은 그 ‘비슷한 것’이라는 기준을 무엇으로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1) 제주 용담동(2696-2번지)유적과 삼도동(북초동길 22번지)유적의 몇몇 주거지에서 1700~1500 ¹⁴C BP 사이의 탄소연대가 측정된 바 있다. 이 연대들의 보정 값은 4~6세기에 속할 가능성이 높다.

2) 예를 들어 점토대토기와 관련된 연구들은 대체로 새로운 집단 또는 사회의 정착 및 확산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盧熾眞 2001, 고은별 2010), 이러한 연구 경향에는 새로운 형식의 토기를 사용한 집단들은 유사한 사회정체성이나 생계경제방식을 공유한 이주 집단이라는 믿음이 바탕에 깔려 있는 듯하다. 물론 이러한 견해가 전적으로 틀렸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이러한 일반화 과정 속에서는 물질문화에 담겨진 다양한 사회정체성의 의미가 무시되어 버릴 수도 있다.

고래는 생물학적으로 인간과 같은 포유류로 분류할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은 특정한 분류기준에 의한 것이지 항상 이 방식으로 분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만약에 바다에 사는 생물과 육지에 사는 생물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면 고래와 인간은 같이 묶일 수 없다. 이처럼 분류는 그 목적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우리는 가끔 이러한 사실을 간과한다. 즉 우리가 행한 분류의 뒤에는 본질적 실체가 있다고 믿어버리는 것이다. 그 예로 우리가 분류한 고고학적 문화나 유형이 과거에 실재했던 특정 집단을 반영한다고 믿어버리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이 믿음은 같은 집단의 사람들은 같은 물질문화를 공유한다는 가정에서 비롯된다. 이러한 가정은 얼핏 타당한 것처럼 보이지만 집단과 고고학적 문화나 유형의 관계는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다(박경민 2018: 71~75).

최근 제주도의 원형 주거지와 관련하여 일련의 논고들이 발표되었다. 이 중 몇몇 논고에서는 물질문화의 변이를 지나치게 본질주의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을 보인다. 예를 들어 특징적인 유구나 유물의 존재를 근거로 집단을 상정하고 그들의 이주로 인해 물질문화의 변동을 설명하는 사례가 있으며(오원홍 2018: 22; 김경주 2018: 137), 송국리 문화에 본질적 실체를 부여해서 그것이 기원후 탐라라는 정치체의 기층문화로 작용한 것으로 해석하기도 한다(이종철 2017: 22). 하지만 그 고고학적 문화나 유형이 인간사회의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없다.

반복적으로 확인되는 유구·유물 복합체는 분명 과거 사회의 어떤 정체성을 반영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그렇기 때문에 일련의 유구·유물 복합체를 바탕으로 설정된 고고학적 문화나 유형은 무의미하다고 할 수 없다. 하지만 문화의 의미나 경계가 항상 고정적인 것은 아니다. 그것은 과거의 시·공간에 얽혀 있는 ‘맥락’에 따라, 그리고 현재 관찰자와 맺어지는 ‘관계’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유동적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원형 주거지가 기원후까지 잔존한다는 현상만으로 송국리 문화가 탐라의 기층문화로 이어졌다고 쉽게 설명할 수는 없다.

본론에서는 현재와 과거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맥락과 관련하여 제주도의 원형 주거지가 어떻게 이해될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필자는 이전에도 원형 주거지에 대해 검토해 왔지만 청동기시대의 시간적 범주 안에서(박경민 2017) 또는 탐라의 형성과 관련하여(박경민 2018) 그 변화양상과 의미해석을 진행했을 뿐 원형 주거지에 초점을 맞춰 전반적인 양상을 통시적으로 다루지는 못하였다. 따라서 본고의 작업은 필자의 앞선 줄고들을 보완하는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Ⅱ. 고고학적 문화 또는 유형과 그 실체

본고에서 필자는 고고학적 문화나 유형을 고정적인 실체로 파악하는 방식으로는 원형 주거지의 변이와 관련된 문화해석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주장하려고 한다. 특히 제주도와 같이 독립된 섬이라는 특수한 맥락 속에서는 외부에서 전해진 물질문화의 의미가 원산지와 다르게 사용될 수도 있기 때문에 다양한 해석 가능성을 열어 두어야 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송국리 유형이라는 범주의 틀에서 한발 뒤로 물러나 좀 더 넓은 시각으로 그것들의 관계를 파악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우선 송국리 유형은 무엇이며 그 실체는 또 무엇인가라는 질문이 필요하다. 그리고 좀 더 근원적으로는 고고학적 문화나 유형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살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들은 선행 연구(崔盛洛 1996, 金玟澈 2008, 崔鍾圭 2008)에서 이미 자세하게 다뤄진 바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고고학적 문화나 유형의 의미보다 그것들의 가변성에 초점을 맞추므로써 그 동안에 인식방법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우리나라 고고학에서 보통 문화는 상위개념으로 유형은 하위개념으로 사용된다. 이러한 개념들은 연구자에 따라, 이론이나 사조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사용될 수 있다. 혹자는 개념이 통일되지 않는 이러한 현상을 문제 삼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 개념이 통일되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연구자마다 그 용어에 담아내고자 하는 의미가 모두 다르고 또 상황에 따라 변화하기 때문에 어쩌면 적절하고 합당한 하나의 개념은 애초에 없는 것일지도 모른다.³⁾ 어쨌든 필자가 본고에서 다루고자 하는 것은 개념 사용의 적절성이 아니라 문화든 유형이든 일련의 유물·유구 복합체를 범주화해서 묶는 순간 발생하는 허구적 실체화이다. 우리는 하나의 문화 또는 유형을 설정한 순간 그 뒤에 감추어진 객관적인 실체를 상상하게 된다.

이러한 허구적 실체화 중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문화와 특정집단을 일대일로 대응시키는 방식이다. 코시나의 방식으로도 잘 알려져 있는데 그는 문화는 종족성을 반영할 수밖에 없다는 믿음에 근거하여 물질문화에서 보이는 유사성과 차이들을 종족성의 유사성과 차이에 상응한다고 주장하였다(트리거, 성춘택 역 2010: 234).

3) 물론 개념의 통일성이 불필요하다는 것은 아니다. 단지 어느 정도 연구자들 사이의 합의가 이뤄지더라도 그것은 고정불변의 것이 아니라 언제나 변화 가능하다는 점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 주장은 20세기 전반기의 것으로 이후 수많은 과정주의 또는 탈과정주의 고고학자들의 비판에 직면하였지만(성춘택 2017: 165) 불과 십수 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 특히 청동기시대 연구에서는 여전히 유효했었다. 실제로 20세기 후반에 시작되었던 혼암리 유형의 형성과정에 관한 일련의 논의에서 일부 연구자들은 유형과 특정집단이 대응관계에 있다는 생각을 전제로 그들의 논지를 전개하였다(朴淳發 1999; 金壯錫 2001).

이러한 생각의 문제점은 우리가 설정한 유형이 고정적인 실체로서, 즉 우리와 상관없이 존재하는 것이라고 믿어버린다는 점이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일련의 유구·유물 복합체를 기준으로 설정하는 고고학적 문화나 유형은 다시 우리에게 의해 매우 가변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음이 드러나게 된다. 실제로 우리는 우리가 놓여 있는 맥락에 따라 문화나 유형을 다르게 해석한다.

일례로 혼암리 유형은 이청규에 의해 설정되고 김장석에 의해 부정되기도 했지만 이 두 연구자의 유형에 대한 인식은 조금 달랐던 것 같다. 이청규(1988: 91~92)는 혼암리 유형의 설정 당시 그 자체가 주민 집단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지는 않았다. 그는 역삼동 유형과의 친연성에 주목하였고 이 두 유형을 묶어 공렬토기 문화라고 칭하였다. 그리고 이 공렬토기 문화는 고조선 이남을 대표하는 주민 집단 문화 중 하나로 인식하였다. 재미있는 사실은 혼암리 유형을 부정했던 김장석(2001: 51~52)도 그 근거를 혼암리 유형과 역삼동 유형의 친연성에서 찾았다는 점이다. 김장석은 적어도 당시 논고에서 만큼은 하나의 유형과 과거집단을 대응관계로 인식하였던 것 같다.⁴⁾ 그는 혼암리 유형은 역삼동 유형과 분포범위, 공반 유구·유물 등에서 매우 유사하기 때문에 다른 집단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혼암리 유형의 설정은 재고되어야 한다는 논지를 펴고 있다.

두 연구자는 공통적으로 혼암리 유형과 역삼동 유형이 상당부분 중첩되고 있음을 인지하였는데 다만 유형에 대한 인식방법이 서로 달랐기 때문에 이처럼 상반된 견해

4) 김장석(2014)은 유형과 집단의 단순한 연결을 비판해 왔다. 하지만 「혼암리 유형 재고: 기원과 연대」라는 논고에서 “혼암리 유형의 유적 간에는 ‘동일한 문화기반’을 가진 ‘동일집단’에 의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을 만큼의 유사성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2001: 57).”라든지, “기존 선점 집단인 역삼동식 집단의 역삼동식 토기와 무시석식 노지가 주류를 차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겠지만, 곳에 따라서는 기존 역삼동 집단에 비해 가락동식 토기와 위석식 노지를 사용하는 유이민 집단이 다수를 점하거나 주류를 형성하는 경우도 있었을 것이다(2001: 61).”라는 표현을 사용했던 것을 보면 적어도 당시에는 어느 정도 유형과 집단의 대응관계를 전제하고 있었던 것 같다.

를 보이게 된 것 같다.

이 사례를 통해 우리가 설정하는 유형은 우리의 인식방법에 의해 얼마든지 다르게 해석될 수 있음을 엿볼 수 있다. 두 연구자가 같은 현상에 대해 비슷하게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유형을 통해 설명하고자 하는 내용이 달랐기 때문에 한 연구자는 특정 유형을 설정했고 다른 한 연구자는 그것을 부정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누구의 의견이 옳았는가 아니라 접근 방법에 따라 유형의 의미가 달라질 수 있음을 알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유형이 우리와 상관없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놓여 있는 맥락에 따라 변할 수 있는 것임을 인식해야 한다.

유형의 설정은 분류라는 작업을 기본으로 한다. 혼암리식 토기, 역삼동식 토기, 가락동식 토기는 모두 기본적으로 심발형토기를 지칭하는데 구연부에 새겨진 문양의 종류와 조합에 따라 다른 식(式)으로 분류된 것이다. 혼암리 유형, 역삼동 유형, 가락동 유형은 이 토기의 분류를 기초로 해서 다른 유구·유물과의 조합관계를 따져 설정된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행하는 이 분류라는 작업에 객관적 실체를 부여할 수 있을까.

조금 다른 얘기가 될 수 있겠지만 십여 년 전 우리가 지금까지 행성이라고 믿어 왔던 명왕성이 행성에서 퇴출당했다. 행성이냐 아니냐도 역시 분류와 관련된 문제이다. 천문학자들이 정한 행성의 분류 기준에 명왕성이 부합되지 않았기 때문에 퇴출당한 것이다.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 그 기준에 부합되느냐 아니냐는 국제천문연맹 총회에서 찬반투표를 통해 결정되었다는 것이다. 그것도 만장일치도 아닌 60% 정도의 찬성표로 통과되었다고 한다. 어떤 학문분야보다도 객관성이 전제되어야 하는 자연과학에서 투표를 통해 행성의 유무를 결정하고 있다는 사실은 다소 충격적으로 다가온다.

만약 인간이 행하는 분류의 뒤에 객관적인 실체가 있었다면 이러한 사건이 발생할 수 있을까. 객관적 실체가 어떻게 투표를 통해 하루아침에 바뀔 수 있을까. 그것도 60%의 찬성만으로. 결국 이 사건은 행성이라는 것이 우리와 상관없이 원래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천문학적 연구를 위해 연구자들이 고안한 분석단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우리의 관찰을 통해 이뤄지는 분류기준 역시 이론에 따라 그리고 증가하는 자료에 따라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것이다.

고고학에서도 그러한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우리의 분류에 의해 설정된 유형은 과거에 존재했던 객관적인 실체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다. 물론 반복해서 확인되는 물질문화의 패턴은 그것을 사용했던 과거인의 의도적인 행위의 결과물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무의미하다고 볼 수는 없다.⁵⁾ 하지만 과거인과 현대인 사이에, 그리고 각 연구자들 사이에 물질문화의 패턴을 인식하는 방법에는 차이가 있을 수도 있음을 상기해야 한다. 발굴조사를 통해 발견되는 유구와 유물들을 일련의 복합체로 묶는 작업은 그것을 사용했던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우리들에 의해 행해지고 있다는 점은 분명히 염두에 두어야 한다. 우리가 만든 유형에 객관적 실체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만든 신이 실재한다고 믿어버리는 것과 똑같은 오류를 범하는 것이다.

혹시 필자의 이 주장을 ‘분류라는 작업은, 즉 고고학적 문화나 유형의 설정은 무의미하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일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필자가 주장하고자 하는 것은 그것이 의미 없다는 것이 아니라 연구자의 성향이나 연구 목적에 따라 유형의 의미가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연구자가 무엇을 위해 그 유형을 설정하고 사용하고 있는지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유형을 고정된 실체로 파악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유형과 대응시키는 과거의 집단은 어떠할까. 과거 집단의 정치적·문화적 경계를 우리는 고정적인 것으로 파악할 수 있을까. 다른 집단과 구별되는 특정한 주민이나 민족 집단의 정체성을 우리는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

우리는 보통 적어도 문헌에 기록된 민족 또는 집단의 정체성이나 경계를 ‘실체’로써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다시 말해 우리의 존재와 상관없이 그들은 과거에 존재했고 따라서 그들은 고정된 실체로써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문헌에 기록된 집단은 실재했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그 집단이 존재했다고 해서 그 집단의 정체성을 고정적으로 바라볼 수는 없다. 즉 문헌속의 집단 역시 우리와 상관없이 존재하지는 않는다. 과거 집단의 정체성은 현재 우리의 정체성과의 ‘관계’ 속에서 형성된다. 필자는 전고를 통해 이러한 ‘관계’를 보여주고자 했다.

필자는 전고에서 탐라라는 문헌속의 정치체가 고고학적으로 어떻게 다뤄지고 있는지 설명하였다. 기존의 탐라에 대한 연구에서는 물질문화의 변화를 통해 수장층의 출현이나 계층사회로의 변화를 이야기했고 이를 바탕으로 탐라정치체의 출발이나 국가 단계로의 진입을 논의하였다. 이에 필자는 기존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계

5) 고고학적 문화라는 개념 자체가 부정되기도 하지만 물질문화상에서 나타나는 급격한 단절은 분명 과거에 대한 해석에 중요한 단서를 주기 때문에 여전히 유용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그 자체가 집단이나 종족과 같은 실체는 아니며 그것은 구체적인 사례에서 고고학자들이 설명해야 할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트리거, 성춘택 역 2010: 299).

층사회의 증거들이 취약 내 기능의 분화로 접근할 여지도 충분하며 또한 당시 제주 사회가 지역에 따라 다양한 정체성이 공존하고 있을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박경민 2018).

기존의 탐라에 대한 논의들은 역사법칙주의⁶⁾적인 사고방식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사회발전단계에 따라 일정한 단계에 이른, 즉 한반도의 여러 정치체의 단계에 필적하거나 버금가는 사회 수준을 그려내고자 하는 욕망이 반영된 것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기존의 논의들은 탐라를 특정 수준에 이른 정치체로 파악하고자 했지만 그 근거가 되는 고고학적 자료들은 그것을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다양한 정체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될 수도 있다. 민족성을 다이내믹하고 도구적인 현상으로 바라보며 물질문화는 상호집단 관계를 조작하고 합리화하는데 적극적으로 이용된다는 호더와 세년의 견해(Jones 1997: 110에서 재인용)는 탐라에 대한 고고학적 해석에서 드러난 문제들을 명확하게 표현해주고 있다.

과거의 정치체에 대한 정체성을 해석하는 데에는 연구자의 현행 맥락이 그 해석 과정의 핵심적 부분을 차지하게 된다(호더·허트슨, 김권구 역 2003: 263). 따라서 과거 집단의 정체성은 그 맥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언제나 변하지 않는 실체로 남아 있는 것이 아니다. 뿐만 아니라 특정 집단의 정체성은 여러 가지 요소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성질을 갖는다. 정체성이란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것처럼 타 집단과 구별되는 자신들만의 특질과 같은 것으로 볼 수 있지만 그 내부적으로는 세대, 종교, 젠더, 직업, 계급과 같은 다양한 정체성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 따라서 물질문화의 세트관계가 어떠한 정체성을 드러내고 있는지 판단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 또한 특정한 물질문화가 특정 정체성과 일대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시·공간에 따라 다양한 정체성과 상호작용하면서 그 의미가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는 집단 정체성을 고정된 실체로 파악하기 어렵다.

이처럼 우리가 설정하는 ‘유형’이든 또 그것이 반영하고 있다고 믿는 집단이라는 ‘실체’든 양쪽 모두 끊임없이 변화하는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둘의 대응 관계를 상정하기 어렵다(박경민 2018: 53). 결국 위의 내용을 요약하면 고고학적 문

6) ‘역사법칙주의’는 이한구가 칼 포퍼의 『The Poverty of Historicism』를 번역할 때 사용한 ‘historicism’에 대한 번역어이다. 일반적으로 ‘historicism’은 ‘역사주의’로 번역되지만 이한구는 역사적 사건들의 개성과 발전을 강조하는 독일의 전통적 역사주의(역사개성주의)와 역사가 거시적인 역사의 법칙에 의해 지배된다는 칼 포퍼가 비판한 역사주의(역사법칙주의)를 구분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역사법칙주의’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이한구 2016: 180~182). 본고에서 필자의 비판은 후자에 관한 것에 가깝기에 ‘역사법칙주의’라는 용어를 차용하였다.

화나 유형은 연구자들이 그들의 목적에 따라 고안한 ‘분석단위’이며 그 뒤에 숨겨진 특정집단과 같은 고정된 실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객관적인 실체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와 상관없이 존재해야 하지만 실제로 그것들은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갖고 다가갔을 때 비로소 우리 앞에 모습을 드러낸다.

Ⅲ. 제주도의 원형 주거지와 송국리 문화

앞장을 통해 필자는 우리가 설정하는 고고학적 문화나 유형은 특정 연구 목적을 위한 분석단위이며 그것을 고정된 실체로 볼 수 없음을 주장했다. 거듭해서 언급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반복적으로 확인되는 유구·유물 복합체가 과거를 이해하는데 전혀 무용한 것은 아니다. 그것은 분명 과거인들의 특정한 물질문화 사용패턴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 우리는 그들의 의도성을 추측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물질문화가 사회의 다양한 정체성을 형성하는데 어떻게 이용되며 또 관여하는지 엿볼 수 있는 단서를 제공받을 수 있다. 따라서 단순한 분석단위로 끝낼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긴 의미를 고려해야 한다.

최근 탈과정주의 고고학에서는 부르디외의 아비투스 개념을 차용해 문화를 의미 있게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한다. 즉 문화는 그 자체로 개인과 집단의 실천을 이룰 수 있게 해주는 범주이면서 그와 동시에 그 실천을 통해 재구성되는 구조라는 것이다(李盛周 2017: 152). 이러한 인식을 통해 각 물질문화 요소들의 상호관계가 인간 행위의 수동적 반영물이 아니라 능동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파악하게 되며 이를 바탕으로 반복해서 확인되는 물질문화의 사용패턴을 의미있게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원형 주거지에 대한 선행 연구에서와 같이 증가하는 자료들을 기존 유형이나 문화의 기준에 짜 맞추는 방식으로는 능동적인 역할을 하는 물질문화의 변이를 제대로 파악하기는 힘들다. 다시 말해 유형이나 문화를 고정적인 실체로 바라보는 틀 속에서는 당시 사회의 다양한 정체성을 추측해 내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필자가 본고의 제목에 ‘송국리형 주거지’가 아닌 ‘원형 주거지’라는 명칭을 사용한 것도 그 때문이다. 명칭만 바꿨을 뿐 본질은 바뀌지 않았다고 할지도 모르겠지만 인간은 인간이 만들어낸 언어에 다시 종속당하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명칭을 바꿈으로써 송국리 문화의 틀 속에서 한 걸음 빠져 나와 좀 더 다양한 관점으로 과거 제주사회를 바라볼

수 있을 거라 기대한다.

송국리 문화에서 가장 중요한 물질요소는 송국리형 주거지와 송국리식 토기를 들 수 있다. 특히 그중에서도 송국리형 주거지는 송국리 문화의 분포범위를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기도 한다(李弘鍾 2005: 38). 제주도의 원형 주거지 유적 역시 이와 같은 기준으로 인해 송국리 유형의 범주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그 외의 송국리 문화 관련 요소들은 다소 불명확하다. 송국리식 토기의 경우 외반된 구연부 편을 통해 그 존재를 추정하고 있으나 원형의 개체가 거의 없어 정확한 형태를 파악하기 힘들다. 원형 주거지에서 확인되는 토기들은 대체로 이른 시기에는 심발형토기이고 시간이 흐를수록 삼양동식 외반구연토기로 대체된다. 따라서 현재 고고자료 상에서 송국리식 토기가 원형 주거지 취락 내에서 주를 점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 외의 요소들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그나마 유구석부는 간간히 확인되지만 삼각형석도는 지표수습 된 1점이 전부라고 할 수 있다. 석개토광묘, 송국리식 옹관묘, 석관묘와 같은 관련묘제들도 유사한 형태들이 드물게 확인되기는 하나 그것을 명확하게 송국리 문화의 것이라고 단정 짓기는 현재로서 애매한 상황이다. 따라서 제주도에 서 송국리 문화를 특징짓는 가장 뚜렷한 근거는 원형 주거지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 원형 주거지가 제주도에서는 기원후에도 지속하기 때문에 탐라의 기층문화로 해석되고 있는 것이다(이종철 2017: 22).

이러한 해석방식은 다음과 같은 질문으로 이어진다. ‘왜 한반도에서는 끝나버린 송국리 문화가 제주도에서는 기원후에도 남아 탐라 문화로 이어지게 된 것일까.’ 이 질문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반도에서는 송국리 문화가 끝나면서 무언가 단절된 느낌을 받게 되고 제주도에서는 계속 이어지는 느낌을 받게 된다.

그렇다면 한반도에서는 무엇이 단절된 것이고 제주도에서는 무엇이 연결된 것일까. 한반도에서는 송국리 문화가 끝나면서 송국리 문화권의 사람들이 사라져 버린 것일까. 그리고 제주도에서는 그 사람들이 그대로 남아있다고 보면 되는 것인가. 사실 기존의 해석방식에서는 송국리 문화가 기원후까지 남아있다고 할 뿐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설명은 명확하게 이뤄지고 있지 않다.

필자의 억측일지도 모르겠지만 위와 같은 문화해석의 이면에는 아마도 송국리 문화 집단과 탐라라는 정치체는 시간을 초월해 무언가 특정한 정체성을 공유하고 있었다는 생각이 깔린 것 같다. 실제 이종철(2017: 22)은 ‘결국 기원후 3~4세기까지 지

속되는 송국리형 취락은 청동기시대부터 유래된 송국리형 문화 도래 집단의 계승자이자 제주도 토착문화의 주인공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라는 표현을 통해 기원 후에 거주하고 있던 제주도의 취락 집단을 송국리형 문화 도래 집단의 계승자로 표현하고 있다.

이와 같은 해석 방식을 한반도에 대입해서 생각해 보자. 그렇다면 한반도에서는 송국리 문화가 사라졌으니 청동기시대에 살았던 집단은 계승자 없이 사라져 버린 것일까. 기존의 인간 집단이 단절되고 새로운 인간 집단이 등장한 것일까.

Ⅱ장에서 드러났던 필자의 주장을 따르다면 이처럼 과거의 집단을 계승한다거나 단절되었다거나 하는 관점은 문제가 있다. 이러한 관점들은 모두 집단을 고정되고 객관적인 실체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다. 앞선 필자의 주장대로라면 집단의 정체성은 항상 변화한다. 하지만 하나의 실체가 다른 실체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그 ‘집단’이 내재하고 있는 의미, 범위, 성격 등 다양한 차원에서의 변이가 모두 발생한다. 유사한 물질문화 요소를 공유하고 있을지라도 그것에 반영된 정체성은 다른 시·공간 속에서, 즉 그 물질문화가 놓여있는 다양한 맥락 속에서 끊임없이 변화한다. 이러한 변화는 당시뿐만 아니라 현재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관찰자의 맥락에 따라서도 변화한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 물질문화 요소가 잔존한다고 해서 그것이 꼭 계승 관계의 증거라 하기도 어렵고 또 그것이 변화한다고 해서 단절된 관계라고 단정 지을 수도 없다. 과거로부터 현대사회까지 한반도에서는 수도 없이 많은 물질문화의 변화가 있어 왔지만 현재 한반도에 사는 인간 집단들은 자신들이 고조선이라는 정치체로부터 수천 년 동안 이어져 내려온 한민족이라 생각하고 있다.

제주도의 송국리 문화가 기원후까지 이어진다고 표현하지만 사실 이어진 것은 문화가 아니라 원형 주거지 하나이다. 그것도 평면형태가 원형이라는 그 요소 하나이다. 내부에 타원형수혈도 잔존하기 때문에 송국리형 주거지가 잔존하는 거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좀 더 세심하게 살펴보면 그마저도 변화하였다. 물론 흑자는 그래도 전 시기의 것을 바탕으로 변화한 것이니 그 정체성이 이어진 것이 아니냐고 할 수도 있겠지만 똑같은 물질문화도 시·공간적 상황에 따라 그 의미가 변화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똑같은 형태의 유물이 다른 시·공간에서 똑같은 정체성을 반영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제주도의 송국리 문화가 탐라의 기층문화로 이어졌다고 쉽게 이야기 할 수 없다.

실제 제주도에서 청동기시대와 그 이후의 물질문화는 많이 다르다. 우리의 시각

에 뚜렷하게 드러나는 원형 주거지라는 요소만 가지고 문화지체현상과 같은 이야기를 하면 곤란하다. 우리가 송국리 유형 또는 문화라는 명칭으로 그것들을 묶어 버렸기 때문에 그 요소만 유별나게 두드러져 보였던 것이다. 이것이 바로 고고학적 문화나 유형이라는 범주 설정의 최대 단점이다. 우리가 무언가를 묶어 명칭을 부여하는 순간 우리가 정의 내렸던 그 주요 요소는 우리 눈에 매우 크게 부각된다. 자신이 관심을 쏟고 있는 무언가가 자신의 눈에 자주 띄게 되는 현상은 한 번쯤 경험해 봤을 것이다. 자신이 임신하거나 아내가 임신했을 때 평소보다 주위의 임신부가 자주 눈에 띈다. 갑자기 임신부가 증가했을 리 없다. 최근 출산율을 고려한다면 오히려 임신부는 줄었다고 봐야 한다. 단지 자신의 관심이 증가했을 뿐이다.

송국리형 주거지는 항상 우리의, 특히 청동기시대 전공자들의 지대한 관심을 받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거지는 항상 우리의 눈에 잘 들어온다. 많은 물질문화 요소들이 변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송국리 문화가 탐라의 기층문화가 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송국리형 주거지라는 요소에 우리가 너무나도 큰 의미를 부여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뒤에 내재하고 있는 고정된 실체를 상상했기 때문이다.

비슷한 형태의 주거지들은 분명 상호 연관성이 있을 것이다. 동시기에 여러 지역에서 비슷한 형태의 주거지들이 확인된다면 분명 접촉이나 주민의 이주와 같은 사건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같은 지역 내에서도 시간적 단절 없이 비슷한 형태의 주거지가 계속 나타난다면 그 주거지는 계통⁷⁾적으로 연결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이 가능성은 단지 특정 물질문화 요소가 연결되었을 가능성인 거지 그 이면에 있는 집단이나 문화의 정체성까지 직접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문화 정체성은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전통과 맥락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과정’ 또는 ‘현상’으로 인식해야 한다(박경민 2018: 72). 따라서 특정 물질문화 요소 하나가 지속해서 이어진다고 해서 객관적 실체로의 정체성이 그대로 이어진다고 볼 수는 없다.

본 장에서 필자의 주장은 결국 제주도에서 확인되는 원형 주거지를 송국리 유형이나 문화라는 틀 속에서 연구하게 된다면 다양한 문화적 변이를 놓치게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는 제주사회의 정체성을 특정문화에 종속되어 있는 하나의 고정된 실체로 바라보게 됨으로써 당시 제주인과 그들의 물질문화에 내재하는 역동적인 행위주체성을 간과해 버리게 된다.

7) 여기서 계통은 인간집단의 계통이 아니라 특정 물질문화의 계통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IV. 원형 주거지와 공반유물의 변화

1. 원형 주거지와 원형점토대토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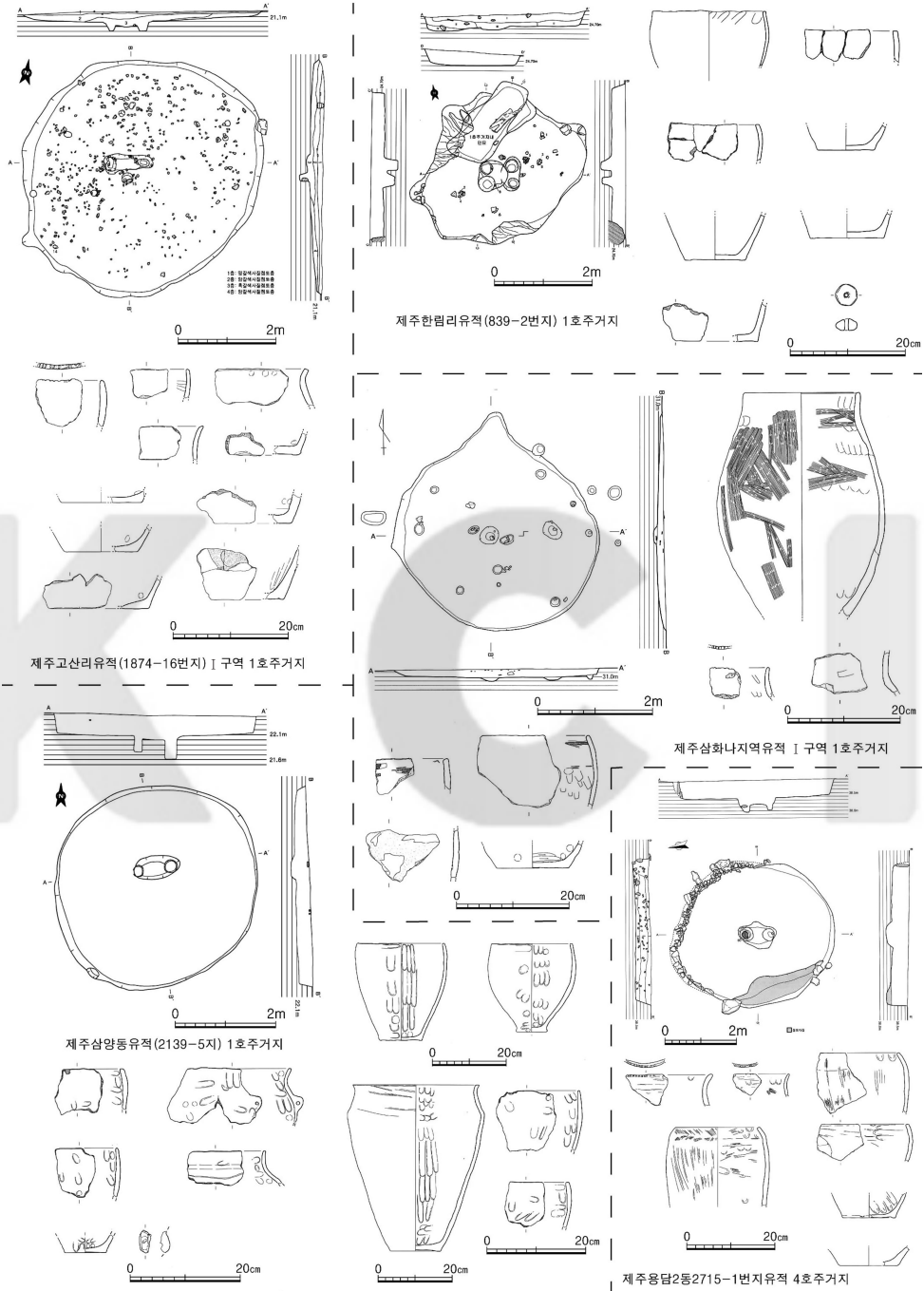
제주도에 원형 주거지가 등장한 시점은 아마 한반도에서 송국리형 주거지가 한참 성행하던 당시일 가능성이 크다(박경민 2017: 114; 김경주 2018: 121; 오원홍 2018: 9~11). 최근 증가한 탄소연대 중 2700~2500 ¹⁴C BP 사이의 연대가 다소 확보되었다. 물론 2500 ¹⁴C BP대의 연대들은 보정곡선의 평탄면 문제로 인해 안정적인 역연대를 추정하기 힘들지만 이 연대에서 원형점토대토기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주로 확인되는 토기는 심발형토기이고 송국리식 토기로 추정되는 외반된 구연부 편도 적지 않다. 저부에서 축약 없이 동체부로 이어지는 제작수법도 눈에 띈다. 토기 문양은 구순각목문이 간혹 확인되기도 한다. 이러한 양상은 제주도 북부와 서부지역인 삼양동, 용담동, 한림리, 고산리에서 주로 확인된다.

하지만 이 시기의 양상은 아직까지 그렇게 뚜렷한 편은 아니다. 이 시기에 해당하는 주거지 수도 많지 않고 유물이나 기타 공반 유구도 명확하다고 하기는 어렵다. 본격적으로 원형 주거지와 공반 유물들이 증가하는 시기는 원형점토대토기가 등장한 2400 ¹⁴C BP代부터이다(박경민 2017: 107~113). 이러한 현상은 농경문화를 바탕으로 한 송국리 문화보다 다양한 생업경제 방식을 추구했던 점토대토기 집단이 비교

[표 1] 2700~2500 ¹⁴C BP의 원형 주거지

순번	유구명	탄소연대 (yrs BP)	연대오차 (yrs BP)	δ13C (%)	교정연대	시료
1	제주 한림리유적(839-2), 1주	2710	50	-22.43	980calBC~790calBC(95.4%)	목탄
		2640	50	-23.08	920calBC~750calBC(93.5%)	목탄
		2540	50	-28.27	810calBC~500calBC(95.4%)	목탄
2	제주 삼화나지역유적 I 구역, 1주	2670	50	-24.65	930calBC~770calBC(95.4%)	목탄
3	제주 삼화나지역유적 III-4구역, 3주	2660	50	-26.22	920calBC~760calBC(95.4%)	목탄
4	제주 삼양2동 2181-45번지 유적, 3주	2630	60	-30.49	930calBC~740calBC(83.5%)	목탄
5	제주 고산리유적(1874-16) I 구역, 1주	2620	50	-25.79	910calBC~740calBC(84.0%)	목탄
6	제주 용담2동 2715-1번지유적, 4주	2550	40	-24.91	810calBC~710calBC(41.2%)	목탄
					700calBC~530calBC(54.2%)	
7	제주 삼양동유적(2139-5), 1주	2510	40	-27.33	800calBC~500calBC(94.2%)	목탄



[도면 1] 원형점토대토기 등장 이전 원형 주거지와 출토유물

적 쉽게 제주도에 정착하였다는 주장의 근거가 되고 있다(오원홍 2018: 22; 김경주 2018: 137). 이 주장은 앞에서 논의한 필자의 주장과는 대치되는 것으로 고고학적 문화와 객관적 실체가 직접 연결되어 있다는 전제를 기본으로 하는 것이다.

원형점토대토기의 등장과 원형 주거지 수의 증가가 어떤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지 현재로서 명확하게 말하기는 힘들다. 하지만 주거지 내부에서 출토되는 토기의 빈도는 재지계토기가 더 높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원형점토대토기 등장 이전과 이후의 유물세트를 비교해 보면 원형점토대토기가 새롭게 추가된 것을 제외하면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도면 1, 2 참고). 즉 원형 주거지 내부에서 출토되는 토기는 여전히 심발형토기나 외반구연된 토기의 비중이 더 높다(박경민 2017: 115). 저부의 제작방식도 축약 없이 동체부로 이어지는 기존 방식이 더 많이 사용된다. 물론 구순각목문이 거의 사라지고 축약된 저부의 비중이 늘었다는 인상을 받을 수도 있지만 수치상에서 뚜렷하게 구분되는 것은 아니다.

원형점토대토기라는 하나의 물질문화 요소를 바탕으로 원형점토대토기 집단이라는 실체를 만들어 낼 수는 없다. 앞선 필자의 주장대로라면 반복적인 유구·유물 복합체를 기반으로 한 고고학적 문화나 유형도 특정 집단과 직접 연결될 수 없는데 하물며 단편적인 토기 요소 하나만 가지고 집단을 상정한다는 것은 더욱더 힘든 일일 것이다.

물질문화 변화의 요인이 꼭 집단의 이주일 필요도 없다. 집단의 이주만으로는 물질문화의 변이를 제대로 설명할 수 없다.⁸⁾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주가 전혀 없었을 거라는 얘기는 아니다. 전라도 남해안과 제주도는 가시거리에 있다. 지금도 날씨가 좋은 날이면 제주 북부 해안에서 남해안의 섬들을 관찰할 수 있다. 랜드마크의 역할을 하는 한라산이라는 지형물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역방향인 남해안 쪽에서가 제주도를 더 잘 볼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중간 중간 징검다리 역할을 해주는 보길도, 추자도, 관탈도와 같은 섬들도 존재한다. 때문에 정확한 빈도를 예측하기는 힘들겠지만 적어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자주 양 지역 주민들이 왕래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 와중에 분명 아예 정착해 버리는 이주민도 존재했을 것이다.

8) 우리나라에서 이주론에 관한 비판적이고 이론적인 논의들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김장석 2002; 이성주 2007; 김종일 2010). 이러한 논의에서 공통적으로 확인되는 내용은 이주나 그에 따른 물질문화의 변이는 다양한 요소가 개입된 매우 복잡한 현상이며 따라서 그것을 일률적으로 설명할 수 없고 사례의 특수성에 따라 맥락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송국리형 주거지나 점토대토기가 확인된다고 해서 그와 관련된 주민집단의 이주로 문화 변동의 모든 것을 설명하기는 어렵다. 새로운 물질문화 요소가 제주도 이입된다고 해도 항상 그때마다 기존에 거주하는 재지민이 존재했을 것이고 그들이 한꺼번에 사라지지 않는 이상 재지민의 숫자가 이주민보다 더 많을 가능성이 높다. 집단의 교체로 모든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항상 그 이전의 재지민들은 몰살되거나 제주도 밖으로 쫓겨나야 한다. 하지만 현재까지 그런 사실을 뒷받침해주는 고고학적 근거는 없다. 물질문화 변화의 과정에 외부인들과의 접촉은 있었겠지만 그 접촉이 교역과 같은 긍정적인 관계든 위력과 같은 부정적인 관계든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재지민일 것이기 때문에 변화의 주체는 재지민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필자의 견해는 원형점토대토기의 등장과 함께 원형 주거지의 수가 증가하는 현상을 집단의 이주와 같은 설명만으로는 충족시킬 수 없음을 보여준다. 이 양상은 기존의 표현을 빌리자면 송국리 문화와 점토대토기 문화의 접변, 즉 문화접변이라고 할 수 있는데 문화접변이 곧 집단의 융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시·공간적으로 어느 한 시점에 위치하는 특정 집단이 다양한 물질문화 요소를 선택적으로 채택하는 경우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 문화가 변한다고 해서 집단이 교체된다거나 다른 집단과 융합된다거나 하는 방식의 설명은 문화와 집단과의 관계를 너무 단순하게 만들어 버린다. 역사적으로 한반도에서는 수도 없이 많은 문화적 변화가 있어왔지만 그 모든 변화를 주민의 이주와 융합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다. 물질문화의 변화는 정치적으로 사회·경제적으로 그리고 환경적으로 매우 복잡하게 얽혀 있는 현상이다. 그리고 그 현상에는 주변의 맥락과 더불어 물질문화를 제작하는 각 개인 제작자들의 의도성도 담겨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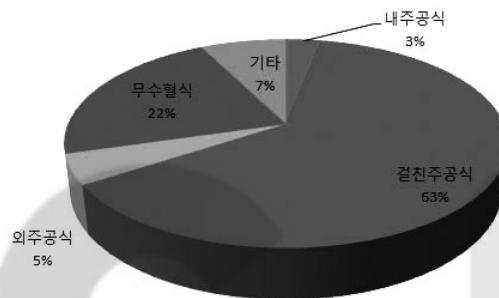
원형점토대토기를 사용하던 일부 인간집단이 제주도에 이주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하지만 그것은 물질문화 변동의 하나의 원인일 뿐이다. 다수의 재지민들이 그것을 받아들여 주체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면 그 변화는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다. 앞서서도 언급했지만 원형점토대토기라는 상징적 유물이 크게 부각되었을 뿐이지 재지적 성격이 강한 물질문화의 비중이 당시 취락 내에서 압도적이라는 점은 매우 중요하다. 한국 고고학에서 원형점토대토기라는 유물에 부여된 ‘위상’을 가리고 바라본다면 원형점토대토기는 당시 물질문화 복합체 중 극히 일부를 차지하고 있을 뿐이다.

물론 그 ‘위상’을 무시할 수는 없다. 한반도의 점토대토기가 바다 건너 제주에서도

확인된다는 점은 양 지역의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하지만 그것은 관계의 문제일 뿐 그것을 통해 실체로서의 집단을 상정하기는 어렵다. 다른 많은 물질문화 요소들을 제쳐두고 원형점토대토기라는 요소 하나만을 부각시켜 집단의 정체성을 반영하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특정 물질문화에 우리가 부여한 '위상'을 제거하고 발견맥락 속에서 그것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

2. 청동기시대 이후의 원형 주거지

원형점토대토기가 사라져갈 무렵 원형 주거지에도 변화의 조짐이 나타난다. 원형점토대토기와 공반하는 탄소연대 측정치는 2200 ¹⁴C BP 이후 급격하게 줄어들기 시작한다. 그와 동시에 내주공식 원형 주거지가 차지하는 비중도 줄어든다 (박경민 2017: 108).



[도면 3] 예래동유적 주거지 형식별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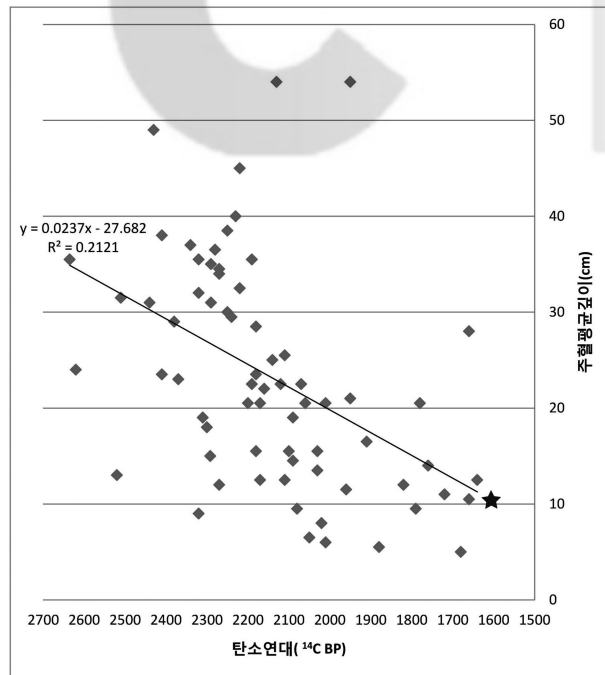
기본적으로 청동기시대 제주도에서 확인되는 원형 주거지는 타원형수혈 내부에 두 개의 중심주혈이 배치되는 형식이다. 하지만 서남부지역인 예래동유적에서는 두 개의 중심주혈이 타원형수혈 내·외부 사이에 걸쳐 있는 주거지(결친주공식)들이 60%이상 차지하고 있어 기존의 양상과는 다른 모습을 보인다. 이 주거지들의 탄소연대는 2300~2100 ¹⁴C BP 사이에 분포하고 있는데 제주 북부지역에서 결친주공식이 증가하는 시점보다 다소 이르다(박경민 2017: 108 그림 16 참고). 이와 같은 현상은 결친주공식의 발생이 예래동유적에서 시작되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또한 예래동유적에서는 원형점토대토기가 잘 확인되지 않고 있는데 이는 북부지역과는 다른 양상이다. 차후 상세한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제주도의 북부와 남부의 주민들은 물질문화의 사용에서 서로 다른 전략을 선택했을 가능성이 있다.

결친주공식은 이후 용담동이나 삼양동 일대의 북부지역에서도 유행하는데 중앙에 있는 양단주혈의 깊이가 얕아지는 특징을 보인다. 이와 함께 주거지의 면적도 작아지는데 이는 주거지의 사용방식이 이전 시기와 달라졌을 가능성을 암시한다.

[표 2] 예래동유적 걸친주공식 주거지 탄소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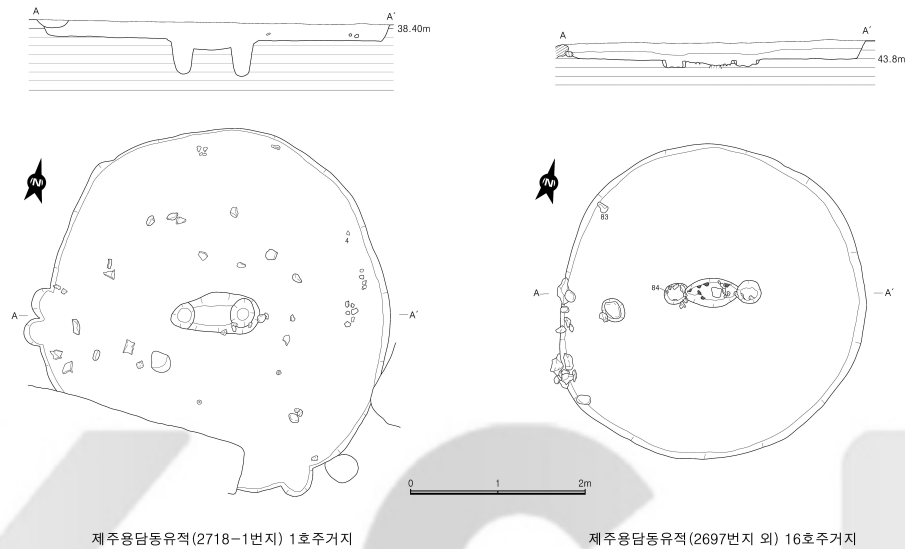
순번	유구명	탄소연대 (yrs BP)	연대오차 (yrs BP)	δ13C (%)	교정연대	시료
1	예래동 I-1구역, 20주	2270	40	-23.49	400calBC~340calBC(39.6%)	목탄
					330calBC~200calBC(55.8%)	
2	예래동 I-1구역, 45주	2180	40	-24.07	380calBC~150calBC(92.2%)	목탄
3	예래동 I-1구역, 46주	2110	40	-22.94	210calBC~30calBC(88.6%)	목탄
4	예래동 I-1구역, 54주	2120	40	-30.17	230BC~400calBC(84.5%)	목탄
5	예래동 I-1구역, 56주	2090	50	-24.46	210calBC~30calAD(90.5%)	목탄
6	예래동 I-1구역, 68주	2170	40	-20.11	370calBC~100calBC(95.4%)	목탄
7	예래동 I-1구역, 68주	2010	50	-25.32	170calBC~90calAD(95.4%)	목탄
8	예래동 I-1구역, 74주	2220	40	-26.1	390calBC~190calBC(95.4%)	목탄
9	예래동 I-2구역, 14주	2270	40	-24.62	400calBC~340calBC(39.6%)	목탄
					330calBC~200calBC(55.8%)	

양단주혈의 깊이가 알아지는 현상은 정확한 시점을 특정하기는 힘들겠지만 대략 2200 ¹⁴C BP 이후 제주도 전 지역에서 관찰된다. [도면 4]의 회귀분석결과는 탄소연대가 낮아질수록 주혈이 깊이가 알아진다는 가설이 유의함을 보여주고 있다. 즉 이 통계결과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원형 주거지의 형태에 변화가 나타남을 보여주는 것이다. 사실 내주공식이나 걸친주공식이나 평면형태 상에서 그 구조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주혈의 깊이가 알아지고 면적이 작아지는 현상은 작은 변화로 치부할 수 없다. 기존의 축조방식이 중심기둥을 깊이 박은 것이라면 변화 이후의 것은 얕은 주혈 상에 었었다는 느낌이 강한데 이러한 양상은 예전처럼 기둥



[도면 4] 탄소연대와 주혈평균깊이의 회귀분석
(★은 p(0.05)의 결과를 나타낸다)

을 단단하게 고정시킬 필요가 없음을 보여주는 것은 아닐까. 그와 함께 작아진 평면적은 거주 인원의 감소나 주거지 내 시설물의 변화 등을 예상해 볼 수 있는데 이를 통해 삶의 방식이 변화했을 가능성도 유추해 볼 수 있다.



제주용담동유적(2718-1번지) 1호주거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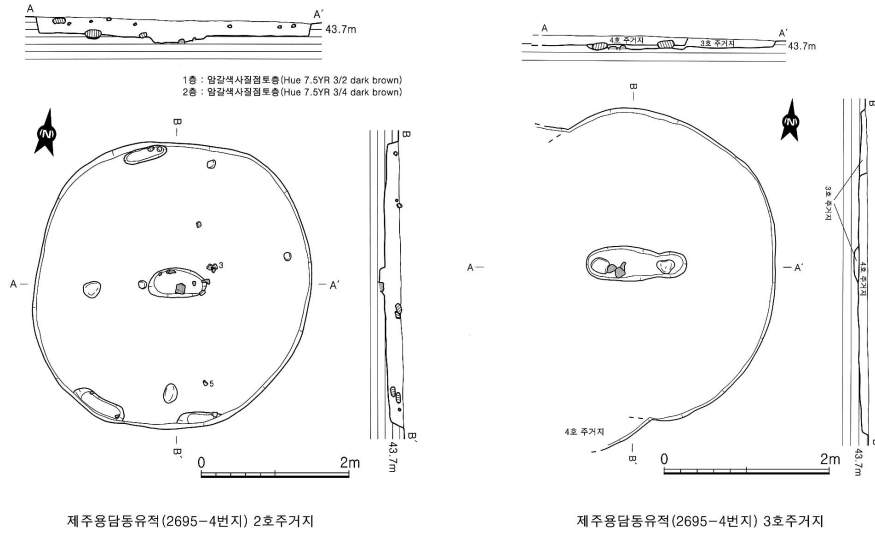
제주용담동유적(2697번지 외) 16호주거지

[도면 5] 깊은 주혈의 내주공식(左)과 얇은 주혈의 걸친주공식(右)

이러한 변화는 한반도에서 잘 확인되지 않는다. 이미 대부분의 지역에서 송국리형 주거지는 사라지고 취락 유적 자체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 제주도에서는 오히려 기존 삼양동, 용담동 일대 뿐만 아니라 광지리, 강정동, 화순리 등에서 취락 유적이 증가한다. 따라서 이러한 원형 주거지의 변화는 한반도와 별개로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높으며 제주사회 내에서 발생했던 독창적인 물질문화의 변화를 암시한다고 볼 수 있다.

타원형수혈의 배치방식은 걸친 주공식 외에도 다양한 형태가 확인된다. 외주공식은 물론이며 타원형수혈 없이 두 개의 주혈만 확인되는 경우도 있고 무주공식도 있다. 또한 내주공식도 여전히 존재한다. 따라서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내주공식에서 걸친주공식으로 변한다기보다는 내주공식 일변도의 양상이 다양한 형태로 변화한다고 봐야 옳을 것이다. 물론 걸친주공식의 비율이 높기는 하지만 이전 시기와 같이 특정 형태의 배치방식을 고집했던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주혈의 깊이가 얕아지는 현상이다.

무주공식의 증가와 초석의 등장도 주거지 변화의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무주공식 중에는 이른 시기의 것도 있지만 대체로 2000 ¹⁴C BP 이후에 그 수가 증가한다.



제주용담동유적(2695-4번지) 2호 주거지

제주용담동유적(2695-4번지) 3호 주거지

[도면 6] 무주공식 주거지(左)와 초석 주거지(右)

즉 중심주혈이 얇아진 후의 변화인데 이것은 어쩌면 주혈이 기능적으로 무의미해짐을 의미하는 것일지도 모르겠다. 초석 역시 비슷한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다. 무주공식이나 초석의 등장은 더 이상 기둥을 파묻을 필요가 없음을 보여준다. 이 역시 주거지의 평면적 감소와 껍을 같이하는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제주 서남부지역을 중심으로 고배형토기나 원뿔형토기와 같은 독특한 토제품들도 등장한다. 이 토기들은 북부지역에서는 잘 관찰되지 않는 것들로 남부지역의 지역색을 보여준다.

1800 ¹⁴C BP 이후에는 철기의 출토가 증가한다. 하지만 출토양이 많은 편은 아니며 잔존상태도 불량하기 때문에 정확한 양상을 파악하기 쉽지 않다. 다만 용담동 철기부장묘에서 철검, 철부 등의 부장 유물이 출토되어 그 피장자의 성격에 대한 궁금증을 일으키고 있다. 수장층의 무덤으로 판단하여 계층사회의 근거로 바라보는 입장(김경주 2012)도 있지만 필자는 전고를 통해 일시적인 현상이었을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왜냐하면 그 주변은 물론 제주도 전 지역에서도 그러한 유물부장세트가 다시 확인된 적이 없으며 유사한 묘제조차도 아직 발견된 예가 없기 때문이다. 용담동 철기부장묘에 '위계'의 정체성이 부여되었다면 그 정체성은 매우 단기간만 이용되었을 것이고 그것이 아니라면 망명과 같은 일회성 사건으로 인한 외부인의 무덤일 가능성도 있다(박경민 2018: 67~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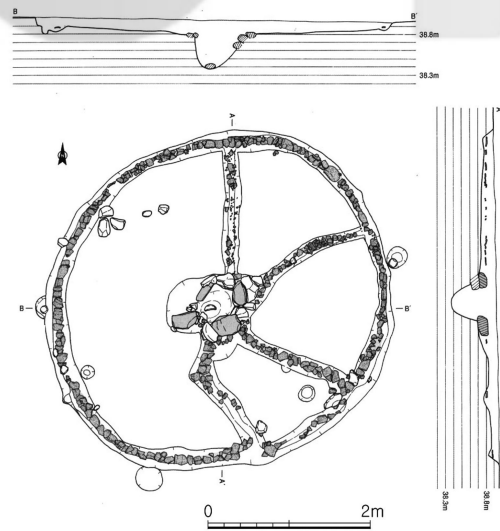
[표 3] 무주공식 주거지 탄소연대

순번	유구명	탄소연대 (yrs BP)	연대오차 (yrs BP)	δ13C (‰)	교정연대	시료
1	제주 괏지리유적(1808-5), 1주	2280	40	-20.71	320calBC~200calBC(49.8%)	목탄
2	제주 용담동유적(2718-1), 6주	2050	30	-26.37	170calBC~20calAD(95.4%)	목탄
3	제주 용담동유적(2622-1), 탐1주	2000	30	-26	60calBC~80calAD(94.6%)	목탄
4	제주 용담동유적(2695-4), 4주	1990	30	-24.54	50calBC~80calAD(95.4%)	목탄
5	제주 용담동유적(2718-1), 5주	1980	30	-26.2	50calBC~80calAD(95.4%)	목탄
6	제주 용담동유적(2695-4), 2주	1960	40	-29.01	50calBC~130calAD(95.4%)	목탄
7	제주 용담동유적(2695-4), 3주	1950	30	-24.2	30calBC~130calAD(95.4%)	목탄
8	제주 용담동유적(2695-4), 5주	1910	30	-27.11	20calAD~170calAD(93.6%)	목탄
9	제주 화순리유적(창고천), 4주	1830	40	-27.49	70calAD~260calAD(92.4%)	목탄
10	괏지리유적(농산물집하장 및), 1주	1670	50	-26.53	240calAD~470calAD(86.7%)	목탄
11	제주 용담동유적(2625-16), 2주	1650	50	-22.74	310calAD~540calAD(86.4%)	목탄
12	괏지리유적(농산물집하장 및), 4주	1650	50	-26.23	310calAD~540calAD(86.4%)	목탄

또한 이 시기에는 특이한 형태의 주거지가 등장한다. 원형 주거지 내부에 벽구가 설치되고 중앙 타원형수혈과 이 벽구를 잇는 또 다른 구가 존재한다. 물과 관련된 집수시설이나 의례시설로 추정되고 있는데 우물과 함께 북부지역에서만 확인되고 있어 이 역시 지역색을 띠는 유구라 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이 시기와 관련된 물질 문화는 전고를 통해 상세히 설명한 바 있다. 물질문화를 통해 본 이 시기는 한반도와의 끊임없는 교류 속에서도 그들과 차별화되는 물질문화를 지속해서 사용하였고 또한 제주도 내에서도 지역에 따라 일부 물질문화 요소들을 다르게 사용하며 지역적 정체성도 드러냈던 것으로 생각된다(박경민 2018).

이처럼 제주도의 원형 주거지와 공반 유물들은 시·공간적으로 다양한 성격의 정체성을 지니고 있었던



제주의도동유적 II-1구역 1호주거지
[도면 7] 벽구 주거지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예래동에서는 청동기시대 말엽에 내주공식에서 탈피하고자 하면서 그들만의 차별화된 형태를 만들어 냈다. 이후 제주도 전 지역에서 중심주혈의 깊이가 얕아지고 주거지 면적이 작아지면서 거주 생활의 변화를 보여주기도 한다. 그리고 집수시설이 설치된 주거지를 북부지역에서만 이용하면서 또 다른 지역적 특색을 보이기도 한다.

원형 주거지는 천년이라는 시간동안 지속해서 형태적 유사성을 유지하면서도 시·공간적으로 다양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단순히 송국리 문화의 정체성을 탐라로 이어주는 매개물이 아니다. 물론 원형 주거지가 지속적인 변화를 거치며 탐라가 형성되던 시기까지 사용되었던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특정한 문화 정체성이 원형 주거지에 그대로 담겨 탐라시대까지 이어졌다는 방식의 설명은 물질문화의 역동성과 그 속에 얽혀있는 다양한 정체성을 간과해 버리게 된다. 따라서 우리는 다양한 맥락에 따라 전반적인 유물복합체와의 관계 속에서 그 변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Jones 1997: 134).

V. 맺음말

필자는 본고를 통해 오랜 시간동안 원형 주거지가 사용되면서 공반 유물과 함께 어떻게 변화하는지 살펴보았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기존의 설명방식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였다.

사실 본고는 선행연구의 문화해석에 대한 비판적 시각에서 시작되었다. 그 비판의 대상이 되는 첫 번째는 농경문화를 영위했던 송국리 문화 집단에 비해 다양한 생업 경제 방식을 활용한 점토대토기 문화 집단이 제주도에 잘 정착하게 되었다는 설명이었고, 두 번째는 송국리 문화를 탐라의 기층문화로 바라본 시선이었다.

필자는 특정 유구·유물 복합체를 고고학적 문화나 유형이라는 범주로 묶어 그것에 객관적 실체를 부여하는 설명방식을 비판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설명방식을 전제로 한 위의 문화해석은 물질문화의 다양한 변이를 지나치게 단순화시켰다고 주장하였다.

선행 연구에서는 원형점토대토기 집단의 성공적인 정착을 이야기했지만 사실 제주도에서 확인되는 점토대토기 문화요소는 재지계 요소들에 비해 매우 낮은 비중을

차지한다. 새로운 물질문화 요소가 등장했다고 해서 반드시 새로운 이주 집단을 상정할 필요는 없다. 집단의 이주가 아니더라도 양 지역의 다양한 관계망 속에서 물질문화의 변이는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 기원후까지 이어진 송국리 문화를 탐라의 기층 문화라고 바라본 시선도 문화해석을 지나치게 단순화시켰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제주도에서 오랫동안 원형 주거지가 사용되는 현상은 송국리 문화의 일부 요소가 잔존하는 것일 뿐이다. 이 현상을 가지고 특정 문화 정체성이 탐라시대까지 그대로 이어졌다는 관점은 과거 사회의 변화에 대해 아무것도 설명하지 못한다.

제주도에서 원형 주거지는 연속적인 변화 속에서 기원후까지 지속해서 사용되는데 이 현상은 분명 한반도와는 다른 모습이다. 이러한 사실은 한반도와 차별화되는 제주사회의 정체성을 파악해 가는데 단서를 제공한다. 이러한 단서를 의미있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맥락 속에서 원형 주거지가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일련의 물질문화를 범주화하여 그것을 고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은 허구적 실체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특징적인 몇몇 물질문화 요소를 통한 고고학적 문화나 유형의 설정은 대표적인 유구·유물에 특별한 '위상'을 부여함으로써 특정 물질문화에 적용될 수 있는 다양한 맥락을 무시하게 만든다. 따라서 우리가 물질문화의 변이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상화된 유구·유물의 지위를 잠시 내려놓고 공반되는 유구·유물과의 다양한 관계 속에서 그것들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

투고일 2018. 8. 30 | 심사완료일 2018. 10. 10 | 게재확정일 2018. 10. 10

참고문헌

- 고은별, 2010, 「경남서부지역 점토대토기문화 생계경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경주, 2012, 「龍潭洞 鐵器副葬墓와 그 被葬者의 性格」, 『嶺南大學校 文化人類學科 40周年 紀念論叢』.
- _____, 2018, 「제주지역 점토대토기문화의 정착과 변천과정」, 『韓國青銅器學報』第22號, 韓國青銅器學會.
- 金玟澈, 2008, 「類型과 種族性(ethnicity)에 관한 비판적 검토」, 『韓國上古史學報』47, 韓國上古史學會.
- 金壯錫, 2001, 「혼암리 유형 재고:기원과 연대」, 『嶺南考古學』28號, 嶺南考古學會.
- _____, 2002, 「이주와 전파의 고고학적 구분:시험적 모델의 제시」, 『韓國上古史學報』38, 韓國上古史學會.
- _____, 2014, 「한국고고학의 편년과 형태변이에 대한 인식」, 『韓國上古史學報』83, 韓國上古史學會.
- 김종일, 2010, 「고고학에서 이주의 개념과 물질문화의 변이-개념 및 서구사례를 중심으로」, 『移住의 고고학』, 제34회 한국고고학전국대회, 韓國考古學會.
- 盧熾眞, 2001, 「粘土帶土器文化의 社會性格에 대한 一考察」, 『韓國考古學報』第45輯, 韓國考古學會.
- 박경민, 2017, 「제주 북서부 청동기시대 물질문화의 시간적 흐름과 성격-주거지와 토기를 중심으로-」, 『湖南考古學報』第56輯, 湖南考古學會.
- _____, 2018, 「담라의 형성과 고고자료의 상관관계 연구」, 『湖南考古學報』第58輯, 湖南考古學會.
- 박순발, 1999, 「혼암리유형 형성과정 재검토」, 『湖西考古學』創刊號, 湖西考古學會.
- 성춘택, 2017, 「고고학과 물질문화의 기원과 계통:비판적 검토」, 『韓國考古學報』第102輯, 韓國考古學會.
- 오원홍, 2018, 「담라 이전 송국리형 주거취락의 변화 양상:삼양동·용담동 일대 유적을 중심으로」, 『湖南考古學報』第58輯, 湖南考古學會.
- 李盛周, 2007, 『青銅器·鐵器時代 社會變動論』, 學研文化社.
- _____, 2017, 「韓國考古學의 起源論과 系統論」, 『韓國考古學報』第102輯, 韓國考古學會.
- 이종철, 2017, 「제주도 송국리형 취락의 특징과 시기구분」, 『韓國青銅器學報』21號, 韓國青銅器學會.
- 李清圭, 1988, 「南韓地方 無文土器文化의 展開와 孔列土器文化의 位置」, 『韓國上古史學報』第1號, 韓國上古史學會.
- 이한구, 2016, 「역사법칙주의는 왜 정당화 될 수 없는가」, 『역사법칙주의의 빈곤』, 철학과 현실사.
- 李弘鍾, 2005, 「松菊里文化의 文化接變과 文化變動」, 『韓國上古史學報』48, 韓國上古史學會.
- 崔盛洛, 1996, 「考古學에 있어서 文化의 概念」, 『韓國上古史學報』22, 韓國上古史學會.
- 崔鍾圭, 2008, 「考古文化의 導入을 위하여」, 『考古學探究』第3號, 考古學探究會.
- 트리거, 브루스(성춘택 역), 2010, 『브루스 트리거의 고고학사』, 사회평론.
- 호더, 이안·허트슨, 스코트(김권구 역), 2003, 『과거 읽기』, 학연문화사.
- Jones, S., 1997, *The Archaeology of Ethnicity: Constructing Identities in the Past and Present*, 2nd ed., Routledge.

A Study on Jeju Island's Circular Dwelling from the Perspective of Tradition and Change

Park, Gyeong-Min(Jeju Island Cultural Heritage institute)

This study is on circular pit dwellings found in Jeju Island that takes a critical approach to the conventional method of cultural interpretation.

Circular dwellings of Jeju Island have been studied within the category of Songgukri culture or type. The archaeological culture or type that we establish, and the fixed substance that we believe to be reflecting them, both change constantly, which is why it is difficult to assume the corresponding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If there is an objective substance to archaeological culture or type, it must exist regardless of us, but in fact it is revealed only when we approach it with a certain purpose.

Although the Songgukri culture of Jeju Island is said to have continued after AD (Anno Domini), in fact it is only the circular dwellings that continued, not the entire culture. In particular, it can be said that the only component that continued is an element of it, the circular form of floor plan. Cultural identity must be perceived not as a fixed substance but as a 'process' or 'phenomenon' that constantly changes according to tradition and context. Just because a single element of a specific material culture continues does not mean that the identity as an objective substance is fully conveyed. Therefore, we cannot easily say that the Songgukri culture of Jeju Island has continued as the basic culture of Tamna.

Moreover, it is likely that circular dwellings increased along with the emergence of Wonhyeong-Jeomtodaepottery, but this does not necessarily lead to a conclusion of a successful settlement of the group of pottery with clay stripes that pursued various economic activities for subsistence. Local elements are found in the relics and artifacts of the time, and thus it is not reasonable to assume the migration groups with the emergence of a few new elements such as pottery with round clay stripes.

Circular dwellings in Jeju Island have changed in various contexts in time and space for a thousand years. This is why the identity of the Songgukri culture cannot be regarded simply as a medium that leads to Tamna. We must set aside the special status given to the typical relics or artifacts for a while, and take a look at them within various contexts.

Key words : Jeju Island, Circular dwelling, Songgukri culture, migration groups, Context

K C I